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은영[†]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024년 3월 19일 접수: 2024년 5월 6일 수정: 2024년 5월 23일 채택)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Eun-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Received March 19, 2024; Revised May 6, 2024; Accepted May 23, 2024)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G시의 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17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one way ANOVA, 피어슨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평균 2.49(SD=0.54)점, 의사소통능력 3.24(SD=0.67)점,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은 3.83(SD=0.55)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공감능력($r = .348, p < .001$)과 의사소통능력($r = .351, p < .001$)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능력($\beta = .240, p = .002$)과 의사소통능력($\beta = .246, p = .002$)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생활적응을 약 16.0%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위해 교과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공감, 의사소통, 능력, 대학생활적응, 간호대학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empathy and communication ability on college life adaptation. The study targeted 177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y in G cit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y 16 to June 9, 2023. Data analysis utilized SPSS 25.0,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calculations, independent t-test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post-hoc analysis using Scheffé's test. Results: The mean scores of empathy was 2.49(SD=0.54), communication ability were

[†]Corresponding author
(E-mail: eykim@gwangju.ac.kr)

* This study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Gwangju University in 2024

3.24(SD=0.67), and college life adaptation was 3.83(SD=0.55).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empathy($r=.348$, $p<.001$), communication ability($r=.351$, $p<.001$), Factors affecting participants' college life adaptation were empathy($\beta=.240$, $p=.002$), and communication ability($\beta=.246$, $p=.002$), which explained about 16.0% of the college life adapt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programs and find ways to efficiently utilize them to empathy and good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tudents.

Keywords :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daptation to college life, Nursing stu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급속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학교 교육의 변화를 대표로 들 수 있다. 실제로 현장 교육 중심이었던 학교 교육이 온라인 중심인 비대면 수업 운영으로 변화되면서 교육의 뉴노멀로 온라인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1]. 더불어 MZ세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앞서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간파할 수 없는 현실에도 놓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속적인 출산을 저하로 인구수 감소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생 수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책으로 많은 대학교는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다. 또한, 대학은 입시경쟁률, 등록률, 재학생 재학률 및 대학의 취업률이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증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학이 교육의 질 기준을 충족하고 교수-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 성과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대학 생활을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다양한 활동 참여는 미래세대의 행복을 높인다 [2].

인간은 사회·관계적 존재이므로 관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관계[2]를 들 수 있다.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자아개방도 중요 하나[3],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주변의 다양한 환경변화와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잘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 즉, 타인을 잘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요구된다[4].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인지하여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5]으로 이는 서로 협동하여 성과를 돌출하며 향후 임상에서도 간호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간호 제공을 위해서라도 공감은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6]. 부족한 공감능력은 상대방에게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우며,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기도 어렵다[7].

또한, 의사소통능력이 활발하거나 좋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보였으며[8], 대학생들의 원만한 의사소통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잘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은 임상 실습뿐만 아니라 향후 임상 기관에서 의료인과 다양한 전문직종, 환자나 보호자 등 여러 대상자와 대면하게 되고 끊임없는 소통이 지속되는 현장에서 직무를 완수해야 한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의사소통의 수단 활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 그 의미는 조직에서 중요하다[10].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11]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인증 평가원에서도 간호학과 학생들이 졸업시점에 의사소통능력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성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에서도 인문사회기초 교과목으로 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12]. 이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소통과정을 향상하게 할 수 있는 실습교육이 진행되기보다는 이론수업이 대부분이며, 임상실습의 경우도 주로 관찰 위주의 실습진행으로 의사소통의 경험은 원활하지 않다[13].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관련 연구는 주로 셸프리더십, 사회적 지지[13]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14], 학업스트레스, 대인관계[15],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16], 공감능력과 그릿[17] 등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오고 있으나, 대학생활적응에 공감능력의 경우 연구결과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16,17] 공감능력의 변인을 좀 더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대학생활의 만족감이 낮고 학과의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18].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 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대학생활적응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하는 2개의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 취지 및 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료 연구윤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는 .15, 검정력은 .95, 유의수준은 .05, 예측변인은 9개(일반적 특성 6개, 연구변인 3개)로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166개로 확인되었으며, 탈락율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설문 대상자를 190명으로 하였다. 응답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을 보인 13부를 제외한 후 177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로 본 연구자가 G시에 소재하는 대학교 중 간호학과 학과장을 찾아 뵙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득한 2개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하루 일과(수업 종료 후)가 마무리된 후 학생들에게 공지한 후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및 중도 탈락의 자율성 등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설명문도 확인하도록 하여 도의이 절차과정을 거쳤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익명화하여 각각의 설문지를 코드화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설문응답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선물로 편의점 쿠폰을 제공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Davis[19]가 개발한 대인간반응성 지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Kang[20]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한국어판 IRI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이 4개 요인(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으로 영역별 문항 수는 7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장이다' 1점에서 '나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일반인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Kang[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78이었으며, 하위요인은 관점 취하기 .61, 상상하기 .81, 공감적 관심 .73, 개인적 고통 .7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의 Cronbach's alpha 값은 .88이었으며, 하위요인은 각 .77, .80, .66, .77이었다.

2.2.2. 의사소통능력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Rubin과 Martin[21]가 개발한 의사소통능력 도구를 Hur[22]가 수정·보완한 포괄적 의사소통능력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Hur[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은 .83이었다.

2.2.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Baker와 Siryk[23]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Lee[24]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총 2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뜻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하고, Scheffé's test로 사후분석하였다.
-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서 평균 2.49점(SD=0.54), 의사소통능력 5점 만점에서 평균 3.24점(SD=0.67),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83점(SD=0.55)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의 5점 만점에 평균은 2.49점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로 살펴본 선행연구[25]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을 대상의 공감능력의 평균 3.44점, 간호학과 4학년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에서도 평균 3.40점[26], 3.76점[27]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선행연구의 대상자 대부분이 임상실습을 경험한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이는 다양한 실습현장의 경험을 통해 전체적인 공감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므로 이런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한 향후 연구로 표본 수를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하위영역별로 비교해보면 김미숙[27]의 연구결과 공감적 관심이 가장 높았고, 개인적 고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는 관점 취하기가 가장 높았으며, 개인적 고통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 공감능력 하위요인 중 간호학생이 느끼는 개인적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은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 고통은 타인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s (N=177)

| Variables | Subscales | M±SD |
|-------------------------|--------------------|-----------|
| Empathy ability | | 2.49±0.54 |
| | Perspective-taking | 2.86±0.64 |
| | Fantasy scale | 2.38±0.60 |
| | Empathic concern | 2.71±0.67 |
| | Personal distress | 2.03±0.64 |
| Communication ability | | 3.24±0.67 |
| College life adaptation | | 3.83±0.55 |

이 느끼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마주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불안감이나 불편감을 의미함으로 앞으로 임상에서 간호사로서 스트레스 완화나 임상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환자 대상자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상황들에 많이 노출되게 되므로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소통 능력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24점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로 살펴본 간호학과 4학년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에서도 5점 만점에 평균 3.68점[28], 5점 만점에 3.94점의 연구결과[27]보다 본 연구결과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3.83점의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결과 평균 3.65점[15],

평균 3.14점[29]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캠퍼스의 경험활동 즉, 동아리 활동이나 동기들 간의 소모임, 다양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점 등이 대학생활적응하는데 제한된 환경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반면에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30] 5점 만점에 평균 4.12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분석 도구와 동일한 도구가 아니므로 결과를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3.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t=-1.549$, $p=.123$), 학년($F=.546$, $p=.651$), 종교($F=.449$, $p=.773$), 친구의 수($F=1.325$, $p=.262$), 거주형

Table 2. College life adapt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7)

| Characteristics | n(%) or M(SD) | College life adaptation | |
|-----------------|-----------------------|-------------------------|---------------|
| | | M±SD | t(p)/ or F(p) |
| Age(yr) | (range 20-36) | 22.34(2.78) | |
| Sex | Male | 32(18.1) | 3.69±0.73 |
| | Female | 145(81.9) | 3.86±0.50 |
| Grade | 1st | 45(25.4) | 3.88±0.55 |
| | 2nd | 41(23.2) | 3.86±0.50 |
| | 3rd | 50(28.2) | 3.84±0.62 |
| | 4th | 41(23.2) | 3.73±0.53 |
| Religion | Christian | 58(32.8) | 3.81±0.59 |
| | Buddhism | 19(10.7) | 3.80±0.42 |
| | Catholic | 24(13.6) | 3.90±0.58 |
| | Non-religious | 61(34.5) | 3.86±0.56 |
| | etc | 15(8.5) | 3.68±0.50 |
| Friendly number | 1 ^a | 22(12.4) | 0.69±0.15 |
| | 2 | 45(25.4) | 0.46±0.07 |
| | 3 | 26(14.7) | 0.60±0.12 |
| | 4 ^b | 12(6.8) | 0.61±0.17 |
| | ≥5 ^c | 72(40.7) | 0.53±0.06 |
| Residence type | Live with parents | 73(41.2) | 0.48±0.06 |
| | living with relatives | 9(5.1) | 0.56±0.19 |
| | Dormitory | 20(11.3) | 0.61±0.14 |
| | Self-cooking | 54(30.5) | 0.59±0.08 |
| | living with a friend | 21(11.9) | 0.61±0.13 |

태($F=1.385$, $p=.24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4학년이 그 이하 학년에서 보다 대학생활적응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31]와 친구의 수에서 5명 이상의 친구가 있는 집단과 거주형태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단의 경우 대학생활적응이 높았다는 연구결과[15]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환경의 접촉이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함께 경험하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임상 실습 과정에서의 공감대 형성 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외생변인을 고려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3.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연령,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학생활적응은 공감능력($r=.348$, $p<.001$)과 의사소통능력($r=.35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과 연령($r=.103$, $p=.17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전공 대학생은 아니지만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성이 높다는 선행연구[32] 결과를 지지한 결과이다. 특히 공감은 의사소통역량과도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으며[33], 오래된 반복 경험은 자신감을 높여 의사소통능력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33]. 실제로 의사소통 교과목의 수강 여부를 비교한 결과 비수강생에 비하여, 전체적인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고, 타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자신감, 타인과 공감하는 공감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34]. 본 연구결과에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역량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4.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했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먼저 회귀분석에 앞서 전제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연속변수는 정상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규 P-P도표에서 회귀표준화 잔차들은 직선에 가깝게 산재하였으며, 산점도상 잔차의 이분산성은 보이지 않아, 정규분포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의 자기 상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Durbin Watson 값을 이용 하였으며, 검증한 결과 Durbin Watson 지수가 1.976으로 나타나 자기 상관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를 이용 하였으며, VIF 지수가 1.05-1.30으로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을 위한 회귀모형은 $F=17.815$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하였고,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177)

| Variables | 1 r(p) | 2 r(p) | 3 r(p) | |
|-----------|----------------|---------------------|---------------------|---|
| 1 | 1 | | | |
| 2 | .190 (.011) | 1 | | |
| 3 | .014 (.852) | .440 ($<.001$) | 1 | |
| 4 | .103 (.173) | .348 ($<.001$) | .351 ($<.001$) | 1 |

1=Age(yr); 2=Empathy ability; 3=Communication ability; 4=College life adaptation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N=177)

| Variables | B | SE | β | t | p |
|-----------------------|-------|------|---------|--------|-------|
| (Constant) | 5.089 | .215 | | 23.708 | <.001 |
| Empathy ability | .241 | .077 | .240 | 3.124 | .002 |
| Communication ability | .203 | .063 | .246 | .3195 | .002 |

$R^2 = .17$, Adj. $R^2 = .16$, $F=17.815$, $p < .001$

R^2)는 .160으로 연구변인들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16.0% 설명하였다.

대학생활적응에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요인이 설명력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두 변인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높으면 의사소통역량도 함께 향상된다[35]. 이에 대학의 수업현장에서도 의사소통과 공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활용한 플립드러닝 수업의 경우 간호대학생에게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36]. 또한, 소집단의 역동을 이용한 교육방법[37]이나 의사소통관련 교과목 수강한 경우 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38]과 공감교육 경험이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효과[39]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개발을 위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 결과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요인들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매개요인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결론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협력, 소통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 입학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것 같아도 막상 입학 후 억누르던 욕망과 자유를 만끽하기도 전에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전공, 새로운 인간관계 등으로 적응을 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간호학과는 대상자의 질병 증진 및 유지를 위해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간호인으로서 인간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졸업과 동시에 임상현장에 놓이게 되는 간호사는 학부 교육과정 속에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도록 연계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였고,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을 독려하여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외생변인들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추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임상실습기관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별 임상실습기관의 환경반영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지역간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들을 보인 성별, 학년, 친구의 수, 거주 형태 간의 차이 비교 연구가 후속 연구로 추진되길 제안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다양한 외생변인들을 고려

하여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M. J. Park, B. K. Min, M. J. Lee, "A Study on the Happiness and Influencing Factors of Future Generations: Focusing on the MZ 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Vol.34, No.4 pp. 121-147, (2021).
2. E. Diener, R. Biswas-Diener, *Well-being Interventions to Improve Societies, Global Happiness and Wellbeing Policy Report 2019*, Global Council for Happiness and Wellbeing, (2019).
3. B. S. Yoon, "Research on Self-opening Techniques to Improve Human Relationships", *Korean Human Relations Review*, Vol.9, No.1 pp. 83-110, (2004).
4. Y. H. Oh, M. S. Park, "Influence of Interpersonal Abil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Freshman in Nursing College: Mediation Effect of Empathy Ability", *Digital Convergence Revolution*, Vol.18, No.8 pp. 331-341, (2020).
5. S. Baron-Cohen, J. Richler, D. Bisarya, N. Gurunathan, S. Wheelwright, "The Systemizing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Vol.358, No.1430 pp. 361-374, (2003).
6. T. Silvia, B. Guido, F. B. Walter, "Enhancing the Empathic Connection: Using Action Methods to Understand Conflicts in End-of-life Care", *Journal of Patient Experience*, Vol.1, No.1 PP. 14-21, (2014).
7. M. J. Bae, H. I. Jo,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Self-esteem, Cognitive/Affective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6 pp. 2417-2435, (2014).
8. J. A. Song, J. S. Jang, "A Research abou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for a Correlation between Community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s and Family Func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5, No.1 pp. 119-144, (2010).
9. Lee HY. *A Study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lict Management Types of College Students*.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7).
10. M. Y. Han, S. K. Sohn, Y. S. Cho, I. J. Kim, M. S. Kim, "Experience in Nursing Unit Management on First Line Nurse Manag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7, No.3, pp. 138-148, (2021).
11. H. J. Kim, J. S. Park,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b Str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on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8, No.1, pp. 57-66, (2022).
12.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23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Evaluation Handbook for Universities*.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23).
13. J. Y. No,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Grit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Vol.9, No.1 pp. 117-121, (2024).
14. Y. S. Do, "Effect of Nursing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Adaption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Vol.1, No.26 pp. 229-239, (2024)
15. E. Y. Kim, "Academic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OVID-19", *Journal of the Korean Oil*

- Chemists Society*, Vol.39, No.6, pp. 783-791, (2022).
16. M. Y. Kim, E. H. Kang, H. J. Park,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Empathy Ability and Problem-solving Skills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0 pp. 283-294, (2021).
 17. E. Y. Chin, C. H. Jung, "Effects of Empathy Ability, Major Satisfaction and Grit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8, No.1 pp. 87-97, (2024).
 18. S. M. Park, C. G. Kim, S. K. Cha, "Influence of Emotional Awar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ess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on Nursing Student Adjust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2 pp. 300-311, (2014).
 19.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The Journal Supplement Abstract Service: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10, pp. 85, 1980.
 20. I. Kang, S. W. Kee, S. E. Kim, B. S. Jeong, J. H. Hwang, J. E. Song, J. W. Kim.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48, No.5 pp. 352-358, (2009).
 21. R. B. Rubin, M. M. Martin, "Development of Measur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11, No.1 pp. 33-44, (1994).
 22. G. 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Communication Study*, Vol.47, No.6 pp. 380-408, (2003).
 23. R. W. Baker,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 Psychol*, Vol.31, No.2 pp. 179-189, (1984).
 24. Lee YJ.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Master's thesis, (1999).
 25. J. S. Lee, H. Y. Cho,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Caring Effici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7, No.2 pp. 186-196, (2021).
 26. Y. H. Hwang, S. J. Park, "The Effects of Empathy and Self Concept on Problem Solv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4 pp. 348-356, (2020).
 27. M. S. KIM,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on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8, No.2 pp. 104-111, (2022).
 28. S. E. Jang, S. Y. Kim, N. H. Park, "Factors Influencing Metacogni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idence in the Performa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4 pp. 448-458, (2019).
 29. S. O. Choi, E. A. Park, "Factors Associated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in COVID 19 Pandemic: Focusing on Self-directed Learning, Self-efficacy and Academic Burnou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23 pp. 183-195, (2022).
 30. K. S. Jeong, "The Influence of the Faculty-Students Interaction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n the Satisfaction in

- Maj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5, No.2 pp. 179-187, (2024).
31. J. Y. Kim,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 era”, *Journal of the Korean Oil Chemists' Society*, Vol.39, No.5 pp. 683-691, (2022).
 32. S. J. Hong, C. S. Park, E. H. Park, D. H. Yoo, “College Students' Empathy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3, No.1 pp. 1371-1382, (2022).
 33. H. J. Park, J. Choi,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moting Communication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14, No.2 pp. 77-92, (2010).
 34. S. H. Lee, C. R. Ryu, “A Study of the Effects of Taking Communicative Competence Class on Communication Ability, Self-Efficacy, Speech Ability and Empathic Ability”,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Vol.19, No.3 pp. 155-185, (2020).
 35. E. J. Ji,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3 pp. 1685-1697, (2014).
 36. J. O. Jeong, S. Kim,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3 pp. 344-356, (2019).
 37. J. S. Won, H. S. Shin, “The Effect of Small Group Based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the Competency of Communication and the Human Relationship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4 No.2 pp. 60-66, (2008).
 38. M. R. Lee, Y. K. Kwang, “The Effects of Nursing Communication Curriculu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4 pp. 181-190, (2016).
 39. J. O. Jeong, S. Kim,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3 pp. 344-356, (2019).